

첫 규정타석·슈퍼루키·150km 투수 주고 데려온 거포까지

# KIA 3루 놓고 대격전 예고

2020 두산서 이적 류지혁  
루키 김도영, 유격수 함께  
한화서 트레이드 변우혁도

KIA 타이거즈의 3루수 주인은 누구일까? 이범호 현 타격코치가 2019시즌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 불박이 3루수는 없었다. 박찬호가 등장해 등번호(25번)까지 물려받으며 3루를 지켰으나 유격수로 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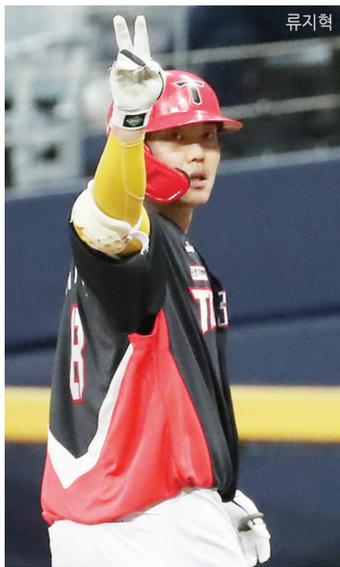
2021시즌은 김태진과 류지혁(28)이 분점했고 올해는 루키 김도영(19)에 이어 류지혁이 주전이었다.

KIA는 전통적으로 한대화, 홍현우, 김상현, 이범호 등 강한 3루수를 보유했었다. 모두 우승을 이끌었던 코너 내야수들이었다.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 3루수를 놓고 격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쟁우력이 3대1이다. 모두 주전을 꿈꾸는 정도로 기량을 갖췄고 기대를 받고

있다. 류지혁은 2020 두산에서 이적해 주전으로 활약하는 듯 했으나 햄스트링 부상으로 작년까지 주춤했다. 올해는 개막전 3루수를 김도영에게 내주었다. 김도영이 부진에 빠지자 한 달 만에 3루 주전으로 도약했다.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규정타석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27경기 477타석을 소화하며 2할7푼7리, 2홈런, 44타점, 55득점을 올렸다. 3할 타율을 못한 것이 아쉽지만 부상없이 4월2일부터 10월 8일까지 단 한번도 엔트리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1군 주전으로 활약한 점은 박수 받을 만했다. 내년에는 규정타석 3할을 목표로 2년 연속 풀타입에 도전한다.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다. 올해 루키 김도영이 내년 시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범경기 타율 1위에 올라 엄청난 기대를 모았다. 개막전 리드오프 겸 3루수로 출전했다. 1년 동안 1군에 머물며 수비와 주루에 힘을 보탤다. 내년에는 3루수 주전에 도전한다. 유격수로



류지혁

함께 보겠지만 3루가 전공이다.

김도영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3루수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주전이 안되면 대주비나 대주자 밖에 할 수 없다. 1년의 경험을 앞세워 다부진 각오로 2023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변우혁

그런데 또 한 명의 3루 경쟁자가 생겼다. 한화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거포 변우혁(22)이다. 150km를 던지는 한승혁과 장지수 등 투수 2명을 보내고 영입했다. 1루수 후보이지만 주전 황대인이 버티고 있어 강력한 3루수 후보이기도 하다.



김도영

KIA는 역대 거포 3루수의 후계자로 기대하고 영입했다. 트레이드로 팀을 옮겼고 5년 차를 맞는다. 잠재력을 터트려야 하는 시점이다. 변우혁이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KIA는 강력한 우타 거포로 얻는다. 이래저래 KIA 3루수는 대격전장이다. 이슬비기자

## 이재성도 전담 트레이너 활용...2701호 사건 새 국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재성(30·마인츠)이 월드컵을 위해 개인 트레이너를 활용했다고 알려졌다.

이재성은 26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카타르월드컵 전 발목 부상 사실을 언급한 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중요한 대회를 앞둔 선수로서 누군가 내 옆에서 온전히 나를 치료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늘 망설였다. 그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고민했다"며 "이번엔 정말 필요하다 느꼈고 한국에 계시는 선생님을 모셔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성은 "나의 발목과 컨디션이 월드컵에 가기 전까지 더 안 좋아지지 않도록 매일 마사지와 치료를 받았다.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에 월드컵에 조금 더 나은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었다"며 "내가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망설였다 끝났다면 이 멋진 무대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범이와 의조도 도움을 받았다. 내가 필요해서 모셔 온 선생님이지만 다른 동료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했다"며 "같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재성, 블로거서 "한국 계시는 선생님 모셔"**  
**"결단 못하고 망설였다면 마무리 어찌 됐을지"**  
**"흔쾌히 동료들을 위해 선생님을 양보했다"**

이고 나만큼 월드컵이 간절하다는 걸 알기에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역시 작은 결단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재성은 "선생님이 없을 때 부상을 입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흔쾌히 동료들을 위해 양보했다"며 "선생님은 나의 결정에 놀라워했다.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월드컵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친구들의 고집다는 말 한마디로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성은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통해 나에게 투자하는 게 향후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알았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얻는 게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손흥민 외에 이재성까지 개인 트레이너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손흥민 전담 트레이너 안덕수씨가 카타르 현지 대표팀 숙소 2701호에서 벤투호 선수들 대부분의 몸 상태를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바 있다.

안덕수씨는 브라질과의 16강전 뒤 인스타그램에서 "2701호에선 많은 일들이 있었고, 2701호가 왜 생겼는지 기사님들 연락 주시면 상상을 초월할 상식 밖의 일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축구협회를 저격하

는 듯 한 글을 올렸다.

손흥민과 이재성 등 대표팀 주축들이 개인 전담 트레이너를 활용했고 다른 선수들까지 돌아가며 처치를 받은 정황이 또 한 번 드러나면서 선수들이 월드컵 과정에서 축구협회를 불신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재차 제기될 전망이다.

전담 트레이너 대동이 축구협회 인력 부족에 따른 짧은 처치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처치 자체의 수준과 질 때문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 벤투, 日모리야스와 함께 IFFHS 올해의 감독 후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행을 이끈 파울루 벤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제축구연맹(IFFHS)이 선정한 올해의 국가대표 감독 후보 2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축구연맹(IFFHS)은 26일(한국시간) IFFHS 어워즈 2022 올해의 감독상 수상 후보자 20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상자는 이탈리아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었다. 올해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발표된다.

후보에는 아르헨티나를 우승시킨 리오넬 스칼로니부터 준우승국 프랑스를 이끈 디디에 데샹, 월드컵 3위 크로아티아의 즐라트코 달리치, 4강 돌풍 모로코의 왈리드 레그라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 16강행을 이끈 벤투 감독을 비롯해 H조 감독들도 후보가 됐다. 포르투갈 페르난두 산투스 감독과 가나 오토 아도 감독이 모두 후보로 선정됐다. 한국을 16강에서 떨어뜨린 브라질의 치치 감독도 후보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르베 르나르 감독, 호주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후보가 됐다.

뉴시스

## 신한은행 김소니아, 데뷔 11년차 첫 라운드 MVP 수상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의 김소니아(29)가 프로 데뷔 11년차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김소니아가 신한은행 쏘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 MVP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김소니아는 기자단 투표에서 총 104표 중 47표를 획득, 39표를 얻은 배혜운(용인 삼성생명)을 단 8표 차로 제치고 라운드 MVP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2012-2013시즌 WKBL에 데뷔한 김소니아가 라운드 MVP로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 데뷔 이후 줄곧 아산 우리은행에서 뛰었던 김소니아는 올해 여름 자유계약(FA)을 통해 신한은행으로 이적한 김단비의 보상선수로 신한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1, 2라운드에서는 김단비가 MVP로 뽑혔고, 이번에는 김소니아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소니아는 3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21.6득점 10.4리바운드로 활약했다.

WKBL 심판부, 경기 운영 요원 투표로 뽑는 기량발전상(MIP)은 부천 하나원큐 김지영에게 돌아갔다. 김지영은 총 투표 수 34표 가운데 25표를 획득, 4표를 얻은 2위 한업시(부산 BNK)를 압도적인 표 차로 제쳤다.

## 최장 연승 끊긴 현대건설, 첫 연패 위기?...다음 상대 김연경

현대건설, 16경기 만에 리그 첫 패배  
야스민·이다현 부상으로 전력 공백  
29일 김연경 이끄는 2위 흥국생명전

한국 배구 역사에 남을 연승 기록을 이어가던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이 KGC인삼공사에 일격을 당했다.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한 현대건설은 주축 부상 공백이 해소되지 않은 탓에 다음 경기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현대건설은 지난 2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인삼공사전에서 폴세트 점전 끝에 졌다.

개막 후 최다 연승 신기록과 정규리그(단일 시즌) 최다 연승 신기록을 노리던 현대건설은 개막 첫 패배를 당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월22일 개막전부터 15경기를 모두 이겨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는 중이었다. 15연승은 단일 시즌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이기도 했다. 지난 시즌까지 범위를 넓히면 현대건설은 지난 3월1일부터 16연승 중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패배는 적잖은 충격을 줬다. 게다가 인삼공사는 지난 2월25일 현대건설에게 마지막 패배를 안긴 팀이었다. 이번 시즌에도 현대건설만 만나면 폴세트 점전을 벌이며 쉽게 물러서지 않던 인삼공사는 이번에도 고



2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대 인삼공사 경기, 16연승 도전에 실패한 현대건설 선수들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배구단 제공)

춧가루를 제대로 뿌렸다.

이번 경기 패인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었다. 여자배구 최고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는 야스민이 허리 부상으로 시술을 받았다. 현대건설에 높이를 제공하는 미들블로커 이다현 역시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다. 양효진과 황연주, 정지윤, 황민경 등 득점원들이 버텼지만 결국 이 두 선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인삼공사 이소영 활약을 막지 못한 것도 패

인 중 하나였다. 현대건설은 리그 최다 득점자인 인삼공사 엘리자벳을 막는 데 집중하느라 토종 공격수 이소영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견제에서 벗어난 가운데 기세가 오른 이소영은 양 팀 통틀어 최다인 26점을 올렸다.

문제는 야스민과 이다현의 공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야스민은 최소 3주 이상 쉬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다현 역시 몇 경기를 더 못 뛰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보강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건설이 만나는 다음 상대는 공교롭게도 배우여제 김연경이다.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은 현재 리그 2위로 1위 현대건설을 승점 3점 차로 추격 중이다.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은 오는 29일 오후 7시 수원체육관에서 리그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흥국생명은 올해 마지막 경기인 이번 경기를 버리고 있다. 앞선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흥국생명은 현대건설에 졌다. 1라운드에서는 1-3으로, 2라운드에서는 0-3으로 패했다. 야스민, 양효진, 이다현, 김단비 등 현대건설 주축의 활약에 흥국생명은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패했다.

이번에는 야스민과 이다현이 빠지는 가운데 체력 면에서도 흥국생명이 유리하다. 흥국생명은 24일 IBK기업은행전 후 5일 만에 경기를 치르는 반면 현대건설은 25일 인삼공사전 후 4일 만에 경기에 나선다. 하루를 더 쉬는 흥국생명이 체력 면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다.

만약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에 패할 경우 2연패가 된다.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2월23일 한국도로공사, 3일 뒤인 2월26일 연이어 패하며 2연패한 바 있다. 이후 현대건설을 연승 가도를 달렸으므로 연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연패는 현대건설에 단순한 기록 이상의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 현대건설 베테랑 황연주는 연승 후 연패 위험성을 언급한 바 있다. 황연주는 지난달 16일 홈경기 후 인터뷰에서 "솔직히 지고 싶지 않는데 지게 되더라도 다음 분위기가 중요하다. 자칫 한 번만 쳐도 초상점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며 "계속 이기다 한 번 지면 세상이 끝난 것 같은데 다음 경기기에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지는 것 자체보다 다음 경기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 패배 충격에 빠진 현대건설이 29일 흥국생명전에서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익숙지 않은 연패로 빠져들지 경기 결과에 이목이 주목될 전망이다.